

#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 및 의복구매동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othing Design Style Preference and Clothing Purchase  
Motive Associated with Sex Role Identity of the Elderly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유 경 숙

Dept. of Clothing &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

Instructor : Kyung-Sook You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othing design preference, clothing attitude and sex role identity.

Us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terview questions.

200 subjects who were 60years of age and older in Kunsan,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X<sup>2</sup>-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he followings.

1. The androgynous type liked two button single jacket and the masculine and indifferentiate type three button single jacket, while the feminine type liked soutien collar jacket in their woman.

2. The androgynous type' purchase motive was 'enough money' 'finding like clothing' while the masculine type's 'to attend meeting'. The feminine type's motive was 'enough money' and the indifferentiate type 'to attend meeting'.

Clothing selection motive was more influenced the androgynous type than the feminine and indifferentiate type by 'design'.

3. The androgynous type felt 'indifferent' for dare clothing of the aging, the masculine type 'hate', the feminine type 'I like to', and the indifferentiate type 'look

so good'.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성장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특히 여성은 임신, 출산 등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형의 변화가 현저하며, 다양한 체형분포를 가지게 된다<sup>1)</sup>.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현대 의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이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킴으로서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해 왔으며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1990년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4%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에는 8.6%, 2010년에는 13.0%에 이르러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인구의 고용율 증대시키고, 연금 제도가 정착화 함에 따라 노년층의 구매력과 소비력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년세대의 파워가 강화되고 노인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노인시장을 생각하여 노년세대에 대하여 전략을 기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3)</sup>.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집단에 맞는 행동과 외모를 갖추게 되며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복을 입으려 한다. 따라서 의복은 착용자의 나이나 성별 뿐만 아니라 역할, 직업, 가치관, 사회적 신분, 성격 등을 표현한다<sup>4)</sup>.

기성복이 대중화, 일반화되고 스포츠 의류뿐만 아니라 아동복, 유아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세분화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을 위한 의복을 따로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드물다. 또한 노인 의복에 대한 관한 연구도 아직 기초적인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sup>5)</sup>, 7), 8), 9)와 노인에게 적합한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연구<sup>10)</sup>,

11), 12)를 시작으로 1990년대는 구체적인 원형연구<sup>13), 14)</sup>와 디자인에 관한 연구<sup>15), 16)</sup>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아직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의 차이를 남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위하여 성, 연령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남방셔츠와 재킷스타일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고자 하며 의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노인복제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과 노인들이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재킷디자인 선호의 차이를 조사한다
2.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남방문양 선호의 차이를 조사 한다.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구매동기 및 의복구입시에 중점을 두는곳의 차이를 조사한다.
4.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II. 관련연구 고찰

### 1. 노년기의 특징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운동능력과 사고능력의 노화정도가 다르고, 또한 의식수준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노인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드나 사회의 모든 적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와 유리(遊離)하는 은퇴시기를 노년기로 간주한다<sup>7)</sup>.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역할은 학습하는 것이다. 성 정체화 과정의 결과로 각 개인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어느 정도씩 습득하여 행동에서 나타내게 되는데 그 정도와 형태를 성역할

정체감(sex role identity)이라고 한다. 개인에 따라 이 두가지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될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남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여성적 특성은 없는 것으로, 또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왔다<sup>18)</sup>.

이와같이 성역할은 남녀의 생리적 차이로 부터 생겨나 생활의 여러 측면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성역할의 발달은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장함에 따라 성역할의 사회화가 계속된다. 즉, 한 개인의 성역할은 많은 역할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지속적이며 모든 역할중에서도 가장 일찍 학습되어지는 것으로서 그 개인의 외형적 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내면적 태도는 물론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역할이다<sup>19)</sup>. 따라서 성역할 정체감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적 요인보다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청년기 때와는 달리 지금까지 자기에 억제되어서 표현되지 않았던 행동 특징들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친밀성, 의존성, 관계 지향성 등이 더 증가하고 반면에 여자에게는 공격성, 자기 주장성, 자기 중심성 및 권위주의 등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은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경향으로 변한다는 것이지 노인이 되면 여자는 남자보다 남성적인 특징을 더 많이 나타내고, 반면에 남자는 여자보다 여성적인 특징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젊었을 때 보이던 큰 성차가 줄어들게 되어서 소위 양성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다양한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청년기에는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으므로 사회적 규범이나 역할에 맞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지만, 노인이 될 수록 점차적으로 심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지금까지 사회화의 영향으로 억압되었던 특징들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한국노인의 성역할정체감 분포를 보면 양성성(2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분화형(27.4%), 남성성(22.6%), 여성성(2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자노인은 양성성이, 여자노인은 미분화형이 가장 많으며, 양성성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활적응에 바람직한 유형은 양성형으로 볼 수 있으며,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이 비슷하게 요구되는 노년기 생활에서 남녀노인 모두 남성성과 여성성을 균형있게 발달 이용하는 것이 노년기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 2. 의복과 성역할 정체감

전통적인 성고정 관념은 의복에 의해 강화되었고 의복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동은 의복을 통하여 남녀에게 적합한 성역할을 습득해 간다<sup>4)</sup>.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에 알맞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행동의 확실한 표현이며, 남성은 남성적인 의복을 여성은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은 남성으로, 여성은 여성으로 보여지게 되어,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을 고수하게 된다<sup>22)</sup>.

이선재<sup>23)</sup>의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의복행동에 있어 성역할 태도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에 있어 근대적 태도를 가질수록 남자대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을 즐기고, 의복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여자대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을 즐기고 편안성을 중시하며 유행성과 성적매력을 나타내는 의복행동에 관심이 적었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는 교복을 착용하는 것보다 자유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여성의 성역할 태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sup>24)</sup>.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여고생이 유니섹스 의복행동에 좀 더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

고 있으며 유니섹스 의복을 더 좋게 생각하였다<sup>25)</sup>.

김정립<sup>26)</sup>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에서 양성성과 남성성의 여대생이 여성성의 여대생보다 유니섹스 스타일과 음의 디자인 의복을 더 선호하였다. 이현미<sup>27)</sup>는 남성성 유형의 여대생은 의복행동에서 양의 의복특성이 높고 여성성 유형의 여대생들은 음의 의복특성이 높다고 하였다. 양성성과 미분화 유형의 여대생들은 남성성 유형과 여성성 유형의 중간적인 의복특성을 나타내었다.

남자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성의 남자대학생은 의복의 개성과 심미성을 중요시한 반면 미분화형은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하였다<sup>28)</sup>.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한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sup>29)</sup>에서 성역할 태도는 의복스타일 선호 및 유행관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태도중 남성성과 양성성 남자가 유행에 대한 관심, 신분상징성 및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성과 미분화 남자는 낮게 나타났다. 즉, 남성적인 남자의 성격은 활동적이며 사교적으로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신분을 과시하고 개성적인 성향이 강하고 양성적인 성격의 남자는 적응성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성취 동기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여성성은 비사교적으로 타인과 유사한 의복을 입으려는 동조성 경향이 강하였으며, 남성성과 여성성 성향이 모두 낮은 미분화 집단은 유행에 대하여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40세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유경숙<sup>30)</sup>의 연구에서 단추2개 싱글재킷만 남녀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단추4개 더블재킷, 수티앵칼라 점퍼, 후드달린 재킷에서는 모두 남자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재킷디자인 선호가 성역할 정체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단추2개 싱글재킷은 양성성 남자와 양성성 여자가 선호하였으며 단추4개 더블재킷에서 양성성 남자는 높은 선호를 보인 반면 미분화 남자집단은 선호가 낮았다. 수티앵칼라 점퍼는 여성성과 미분화 남자보다 양성성 남자가 더 선호하였으며, 후드달린 재킷은 양성성과 남성성 남자의 집단보다 여성성과 미

분화 집단의 선호가 높았다. 문양선호에 있어서는 가는체크, 플레이드 및 세로줄문양에서 남자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가는체크는 양성성 남자가 플레이드문양은 양성성과 여성성 집단에서, 세로줄문양은 양성성 남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은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수단이 되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의복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변화로 인해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요구하는 양성성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정체감이 여러가지 의복 측면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 3. 노인의 의복태도

성인기에는 월의복지출비가 의복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인데 반하여 노년기에는 건강이 더 큰 변인으로서 외모의 기본이 되는 건강의 상태에 따라 의복행동에도 차이가난다. 노년기에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 경우 사회활동이나 사교적 모임 등을 많이 가지게 되므로 의복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흥미가 많아져 의복구입과 관리에도 주력하게 되며<sup>31)</sup> 건강이 좋을수록 의복 착용시 색상 배합과 전반적인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sup>32)</sup>.

노인소비자의 특성가운데 하나가 소득의 상실 내지는 감소이며, 이것은 노인의 소비패턴에 그대로 반영된다. 노인은 은퇴로 인한 경제력의 상실로 소비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고, 낮은 구매력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sup>33)</sup>.

노년기 여성들은 대체로 의복에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sup>34)</sup> 기성복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불만족 요인은 가격, 색상, 모양, 맞춤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행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적었다<sup>35)</sup>.

의복구입 장소는 시장 이용율이 가장 높으며, 의복 구입시는 주로 혼자서 하며 노년기 여성의 의복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한다. 의복은 대부분 진열장에 진열된 옷을 보고 구입하는 비중이

높아 광고는 노년기 여성들의 의복구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6)</sup>.

따라서 노인들은 그들의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저렴한 가격에 그들이 원하는 안락감과 유연성이 있는 것, 색상과 무늬, 그들의 신체적 결합을 보완해 주는 의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재킷스타일, 남방문양에 관한 선호와 의복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영<sup>19)</sup>이 사용한 Bem의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short form BSRI(Bem Sex Role Inventory)로서 남녀별로 각각 10개의 中性문항을 포함시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계수는 남성성 척도가 .81, 여성성 척도는 .86이었다.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中央値半分法(median split method)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즉 5점 Likert - type의 척도에 의해 평정된 남성성 척도 문항과 여성성 척도 문항을 합하여 각각의 중앙치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 이상이면 양성성의 성격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여 양성성이라 칭하고,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남성적 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남성성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상이면서 남성성 점수는 중앙치 이하이면 여성적 성격특성이 높은 것을 뜻하여 여성성이라 칭하며 마지막 4번째 집단으로서 두 점수가 모두 각각 중앙치 이하이면 양성성의 성격 특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미분화라 칭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

경숙<sup>30)</sup>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킷스타일과 남방문양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재킷과 남방이 성별에 관계없이 입혀지는 품목이므로 재킷은 스타일의 측정에, 남방은 문양선호의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선정하였다. 재킷 스타일의 선호는 정장스타일 3개와 캐주얼 스타일 3개를 합쳐 모두 6개의 스타일을, 남방의 문양은 모두 6가지로 가로줄문양, 물방울문양, 작은 꽃문양, 가는 체크, 플레이드(굵은 체크), 세로줄문양을 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킷스타일에서 사과리형 재킷과 후드달린 재킷, 문양에서는 가는체크 등은 선호도가 낮아서 전체 분석대상에서 삭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면접법에 의한 조사이므로 재킷과 남방의 그림을 각각 36.3×25.3cm 크기의 캔트지에 제시하여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을 한 가지 택하게 하였다.

의복구입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복구매동기'와 '의복구입시에 중점을 두는 곳'의 문항을, 의복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위해서 '동년배의 대담한 옷차림에 대한 반응' 및 '신세대 패션의 수용여부'를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다.

#### 2.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서 임의표집하였으며 남자 88명, 여자112명으로 총 2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5년 12월이었다.

자료분석은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집대상을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선정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 편의 표본추출방법을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닌 설문조사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성역할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

노인의 성역할정체감 및 의복디자인 선호와의 관계를 X<sup>2</sup>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성역할정체감과 재킷디자인 선호와의 관계를 보면 여자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김재희<sup>29)</sup>의 성역할 태도가 의복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여자는 양성성집단이 단추2개 싱글재킷과 단추4개 더블재킷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성성집단은 단추3개 싱글재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집단은 수티앵칼라점퍼를, 미분화집단은 단추3개 싱글재킷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과 남방문양 선호와의 관계를 <표 1>에서 보면 남녀 모두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유경숙<sup>30)</sup>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년층에 있어서는 문양선호에 성역할정체감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젊었을 때 보이던 큰 성차가 줄어들기<sup>30)</sup>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 2.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 구입 태도와의 관계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구입 동기 및 의복구입시에 중점을 두는 곳의 차이를 X<sup>2</sup>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구입 동기와의 관계는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노인의 의복구입 동기가 양성성 집단은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때'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었을 때',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였다. 남성성 집단은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옷이 남아서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성은 활동적이며 사교적으로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신분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함을<sup>30)</sup> 알 수 있다. 여성성 집단은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때'의 비율이 가장 높아(25.6%) 양성성 집단과 비슷하나 두 번째의 구매동기로서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20.9)의 순서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미

<표 1>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와의 관계

구분	남						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X <sup>2</sup>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X <sup>2</sup>	
재킷 디자인	단추2개 싱글재킷	5(21.7)	2(14.3)	5(31.3)	8(40.0)	20(27.4)	12.85 df=9	10(35.7)	12(38.7)	4(22.2)	7(25.0)	33(31.4)	25.70** df=9
	단추3개 싱글재킷	1(4.3)	3(21.4)	0(0.0)	3(15.0)	7(9.6)		6(21.4)	14(45.2)	4(22.2)	9(32.1)	33(31.4)	
	단추4개 더블재킷	6(26.1)	3(21.4)	7(43.8)	2(10.0)	18(24.7)		10(35.7)	5(16.1)	2(11.1)	7(25.0)	24(22.9)	
	수티앵칼라점퍼	11(47.8)	6(42.8)	4(25.0)	7(35.0)	28(38.4)		2(7.2)	0(0.0)	8(44.5)	5(18.9)	15(14.3)	
계	23(31.5)	14(19.2)	16(21.9)	20(27.4)	73(100)		28(26.7)	31(29.5)	18(17.1)	28(26.7)	105(100)		
남방문양	굵은 가로줄 모양	10(38.5)	5(41.7)	4(19.0)	7(33.3)	26(32.5)	15.94 df=12	3(11.5)	2(6.3)	1(5.3)	3(11.1)	9(8.5)	13.72 df=12
	물방울 문양	1(3.8)	3(25.0)	4(19.0)	1(4.8)	9(11.3)		9(34.6)	12(37.5)	8(42.1)	7(24.1)	36(34.0)	
	작은 꽃문양	5(19.2)	0(0.0)	1(4.8)	1(4.8)	7(8.8)		9(34.6)	15(46.9)	5(5.3)	7(24.1)	36(34.0)	
	플레이드(굵은체크)	8(30.8)	2(16.7)	7(33.3)	6(28.6)	23(28.8)		2(7.7)	0(0.0)	1(5.3)	5(17.5)	8(7.5)	
계	2(7.7)	2(16.7)	5(23.8)	6(28.6)	15(18.8)		3(11.5)	3(19.4)	4(21.1)	7(24.1)	19(17.9)		
계	26(32.5)	12(15.0)	21(26.3)	21(26.3)	80(100)		26(24.5)	32(30.2)	19(17.9)	29(27.4)	106(100)		

\*\* p<0.01 ( ) = col. %

분화 집단은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때’의 순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은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을때에 의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구입시에 중점을 두는 곳의 관계는 <표 2>와 같이  $p < 0.01$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의복을 구입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 고르는 것은 ‘디자인’이었으며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보다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의복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여성성이나 미분화 집단보다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기<sup>29)</sup> 때문에 디자인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노년기가 되면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분화 집단에서 재질을 26.4%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역할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 3. 성역할 정체감 및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성역할 정체감과 동년배의 대담한 옷차림에 대한 반응 및 지금의 신세대 패션의 수용여부와의 관계를  $X^2$ 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성역할 정체감과 동년배의 대담한 옷차림에 대한 반응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Column %를 볼 때 양성성 집단은 ‘별 생각이 없다’가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성 집단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성 집단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가, 미분화 집단은 ‘아주 보기 좋다’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남성성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성성이 타인과 유사한 의복을 입으려는 동조성이 강하다는 김제희<sup>29)</sup>와 미분화형은 동조성이 높다는 김윤정<sup>28)</sup>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양성성 집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비율 높았다. 이는 양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응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과 자신이 신세대라면 지금의 신세

<표 2>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 구입태도와의 관계

구 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X^2$
의 복 구 매 동 기	친구가 새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1( 1.8)	2( 4.2)	5(11.7)	2( 3.8)	10( 5.0)	37.33** df=21
	새로운 유행을 따르기 위해	0( 0.0)	2( 4.2)	1( 2.3)	6(11.3)	9( 4.5)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어	12(21.4)	3( 6.3)	7(16.3)	7(13.2)	29(14.5)	
	옷이 낡아서	8(14.3)	9(18.7)	6(13.9)	3( 5.7)	29(23.0)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때	17(30.4)	8(18.7)	11(25.6)	9(17.0)	45(22.5)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12(21.4)	18(37.5)	9(20.9)	12(22.6)	51(25.5)	
	기본전환을 위하여	1( 1.8)	1( 2.1)	1( 2.3)	6(11.3)	9( 4.5)	
	기 타	5( 8.9)	5(10.4)	5( 7.0)	8(15.1)	21(10.5)	
계	56(100)	48(100)	43(100)	53(100)	200(100)		
의 복 구 입 시 에 중 점 을 두 는 곳	디 자 인	30(53.6)	26(54.2)	19(44.2)	23(43.4)	98(49.0)	22.49** df=9
	색 상	8(14.2)	6(12.5)	1( 2.3)	3( 5.7)	18( 9.0)	
	재 질	2( 3.6)	2( 4.2)	7(16.3)	14(26.4)	25(12.5)	
	가 격	16(28.6)	14(29.1)	16(37.2)	13(24.5)	59(29.5)	
	계	56(100)	48(100)	43(100)	53(100)	200(100)	

\*\*  $P < 0.01$  ( ) = col. %

〈표 3〉 성역할 정체감 및 의복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구 분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계	X <sup>2</sup>
동년배의 대 담 한 옷차림에 대 한 반 응	별 생각이 없다	20(35.7)	11(22.9)	9(20.9)	10(18.9)	50(25.0)	37.81** df=12
	꼭불건이라고 생각한다	14(25.0)	17(35.4)	6(13.9)	10(18.9)	47(23.5)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	15(26.8)	5(10.4)	5(11.6)	4( 7.5)	29(14.5)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	4( 7.1)	4( 8.4)	13(30.3)	14(26.4)	35(17.5)	
	아주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3( 5.4)	11(22.9)	10(23.3)	15(28.3)	39(19.5)	
	계	56(100)	48(100)	43(100)	45(100)	200(100)	
신세대 패션의 수 용 여 부	전혀 아니다	8(14.2)	22(45.9)	10(23.3)	11(20.8)	51(25.5)	39.75** df=15
	아니다	13(23.2)	12(25.0)	17(39.5)	11(20.8)	53(26.5)	
	그저 그렇다	17(30.4)	6(12.5)	5(11.6)	7(13.2)	35(17.5)	
	그렇다	9(16.1)	4( 8.3)	3( 7.0)	12(22.6)	28(14.0)	
	아주 그렇다	0( 0.0)	0( 0.0)	1( 2.3)	5( 9.4)	6( 3.0)	
	계	56(100)	48(100)	43(100)	53(100)	200(100)	

\*\* P&lt;0.01 ( ) = col. %

대 패션의 수용여부와 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Column %를 보면 양성성 집단은 '그저 그렇다'의 비유율이 높았으며 남성성 집단은 '전혀 아니다'의 비율이 45.9%로서 '아니다'의 비율과 합하면 70.9%로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성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개성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성 집단은 '아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39.5%) 남성성 집단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낮았다. 미분화 집단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노인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의복구매 동기와 의복구입시에 중점을 두는 곳 및 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군산 지역의 60세 이상 남녀 노인 20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정체감과 재킷스타일 선호와의 관계에서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자는 양성성집단이 단추2개 싱글재킷과 단추4개 더블재킷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성성집단은 단추3개 싱글재킷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집단은 수티앵칼라점퍼를, 미분화집단은 단추3개 싱글재킷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과 남방문양 선호와의 관계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의복구매 동기가 양성성 집단은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때'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 띄었을 때',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였다. 남성성 집단은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옷이 남아서의 순이었다. 여성성 집단은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 때'의 비율이 가장 높아(25.6%) 양성성 집단과 비슷하나 두 번째의 구매동기로서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20.9)의 순서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미분화 집단은 '모임이나 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금전적 여유가 생겼을때'의 순이었다.



의복을 구입할 가장 중점을 두어 고르는 것은 '디자인'이었으며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보다 양성성과 남성성 집단이 의복을 구입할 때 '디자인'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분화 집단에서 재질을 26.4%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성역할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3. 성역할 정체감과 동년배의 대담한 옷차림에 대한 반응은 양성성 집단은 '별 생각이 없다'가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성 집단은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성 집단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가, 미분화 집단은 '아주 보기 좋다'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남성성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고 여성성과 미분화 집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양성성 집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성역할 정체감과 자신이 신세대라면 지금의 신세대 패션의 수용여부와의 관계를 보면 양성성 집단은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성 집단은 '전혀 아니다'의 비율이 45.9%로서 '아니다'의 비율과 합하면 70.9%로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성 집단은 '아니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39.5%) 남성성 집단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낮았다. 미분화 집단은 '그렇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노인의 의복스타일 선호를 이해하는 데 관련되는 변수가 되며, 의복구매의 동기 및 의복에 대한 태도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성역할 정체감이 문양선호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것은 노년층에 있어서 의복의 문양 선호가 성역할 정체감과 같은 심리적인 변인이 작용하기 보다 변화를 싫어하는 노년기의 특징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노인들의 의복선호에 비추어 볼 때 노인들이 선호하고, 노인들만을 위한 좀 더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디자인 선호에 있어서 재킷스타일과 남방셔츠의 문양선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류제품에 대한 선호를 조

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 변화되는 성역할 정체감을 노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연구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요시 된다. 앞으로는 조사대상에 있어서 거주지나 사회계층을 고려한 폭넓은 범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york: Holt Rinehort and Winston inc, 1966, pp.306-323.
- 2) 박재간, "노인과 지역사회", *한국노년학*, 11(1), 1991, pp.65-72.
- 3) 서병숙, 『노인연구』, 교문사, 1991, p.202.
- 4) Horn M. J. and Gurel L. 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2.
- 5) Lowenthal, M. F., Psychosocial variation across the adult life course: Frontiers for research and policy. *The Gerontoloist*, 15(1), 1975, pp.6-12.
- 6) 김일분, 노년층 여성의 의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 유경숙, 노년층 여성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8) 이해숙,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9) 임치경,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0) 강순희, 정미혜, 한국 노년층 여성의 의복설계를 위한 체형에 관한 연구 - 배면형태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대 논문집, 1983, pp.37-63.
- 11) 김혜경, 장승옥, 노년층 여성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4), 1982, pp. 53-67.
- 12) 이종남, 이순원, 노년기 여성의 의복제작을 위한 체형연구-주성분 분석에 의한 분류,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8, 1983, pp.55-66.
- 13) 도윤희, 노년층 여성의 체형특성과 briefs원형의

-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14) 박혜경, 노년기 여성의 체형별 Slacks원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5) 조은주,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16) 임연주, 노년층 여성의 의복태도와 체형에 따른 디자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17) Cumming, E. & Henry, W. I.,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agement*, Boston: Tawnyne Publishers, 1961, p.50.
- 18) 임선옥, 남성의 성역할과 광고에 대한 반응,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 19) 김선영,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 20)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p.65.
- 21) 김태현, 유은희, “노년기에서의 성역할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5(4), 1987.
- 22) Davis, L. L.,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 Relate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1984, pp.20-24.
- 23) 이선재,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서울시내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8, 1989, pp.171-193.
- 24) 김정희, 서울시 남, 녀 고교생의 교복, 자유복 착용에 따른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0.
- 25) 최경희, 강혜원,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유니섹스 의복을 중심으로, 한국의 류학회지, 19(1), 1985, pp.1-8.
- 26) 김정립, 성 정체감에 따른 여자대학생의 의복행동 차이, 석사학위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27) 이현미, 어머니와 딸의 성역할 정체감과 음양 의복행동간의 관계: 이대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 28) 김윤정, 남자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
- 29) 김재희,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4.
- 30) 유경숙, 성역할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 31)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통계적·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3.
- 32) 강혜원, 이선경, 노년층 남녀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의복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4, 1990, p. 12.
- 33) 이성립, 이기춘, 노인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991, p.178.
- 34) Ebling, M. & Rosencranz, M. L., Social and Personal Aspect of Clothing for Older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1961, pp. 464-465.
- 35) 김영애, 노년기 여성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36) 조은주, 노년기 여성의 의복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8.